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20일 수요일 음 4월 28일 (5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20%
20%	성산	20%
20%	고산	20%
20%	서귀포	20%

해돋이 05:30	달뜨기 04:12
해지기 19:31	달지기 17:11
물때 만조 09:17	간조 03:43
21:57	15:47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14/22°C
모레	구름 많음	16/23°C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높음



월드뉴스

日 “한국 중요한 이웃… 독도 불법점거”

1957년부터 매년 백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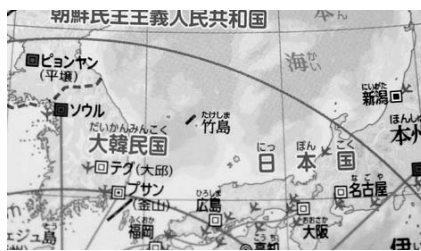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명기했으나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취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교과서.

다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주장했다.

작년에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했다가 나중에 유예하는 등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상황이 올해 외교청서에도 반영됐다. 외교통신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외교 상황, 국제정세 등을 담은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생활



박준혁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장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최전선에서 누구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누구도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은 특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올해 3월에 대구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하고 사망자 4명 중 1명이 치매환자라는 보고로, 치매환자가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하다는 근거 없는 걱정과 우려가 커졌고 치매와 코로나19의 연

코로나19 팬데믹 속 치매

관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금은 치매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일반인보다 치명적인 이유는 두 질환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보다 주로 치매환자의 나이의 영향으로 밝혀졌다. 치매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다양한 동반 질환을 앓고 있어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률은 2.4%이지만 고령층인 70대와 80대 이상은 각각 10.9%, 25.9%로 다른 연령 층에 비해 확연히 높다.

그러나 사태 초기의 집단 감염을 제외하고는 현재 치매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의 신규 사례는 많지 않다. 역설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치매환자들은 병의 특성상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상 거리두기를 이미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매환자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의 직접 방문이 현저히 줄었고, 요양원 입소중인 치매환자들에 대한 면회가

발써 100일 이상 제한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들은 대부분의 대면서비스들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 이런 환경 변화가 치매환자에게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가족을 100일 이상 면회 못한 요양원에 입소중인 치매환자 A씨는 가족들이 나를 버리지 않나 불안해하시어 요즘 배회와 불면이 심해졌고, 경도의 치매환자 B씨는 치매안심센터의 인지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뭔가 스스로 방치된다는 생각에 점점 예민해지고 가족들과의 갈등이 많아졌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상황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미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이제 치매환자의 치료와 관리에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상현장에서 치매환자 진료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로, 치매환자의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기존 치매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위한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도 한 대책이 될 것이다.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현 상황과 지역 상황에 맞는 치매환자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선정해 독거노인, 빈곤층,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계층 등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관리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도 직접 면회를 대신할 영상 면회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와 가족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특히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치매환자를 위한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고 바로 지금이 그 준비를 시작할 시점이다.

열린마당

즐거운 수상레저,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천식

제주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5월 들어 제주 바다를 찾아 서핑, 낚시 등을 즐기는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해양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3월 서귀포 해상에서 7명이 탑승한 레저보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암초에 좌초되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해로드 SOS 신고로 신속한 구조가 이뤄져 가슴을 쓸어내렸다. 제주에서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17~19년) 총 278건 중 153건(55%)이 5~9월에 집중됐다.

특히 레저기구가 운항을 시작하면서 인적 부주의에 의한 사고(기관고장 등)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안전한 수상레저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출항 전 연료량·배터리 전압·냉각수 배출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는 생명벨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구명조끼는 부력·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하자. 해로드 앱은 긴급상황 시 원클릭으로 신고자 위치가 포함된 SOS 알림이 해양경찰에 발송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미리 운운법을 익히고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현재 제주해경은 여름철을 대비해 주요활동·사고다발 구역을 확인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제주를 출입한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은 단거리 수상레저 활동객이 많아 문자가 가능한 파출소 대표번호를 홍보해 활동객 스스로 출입항 사항을 알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바다에서 해양경찰과 함께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청렴의 실천은 일상생활에서도 가능



박수연

서귀포시 제문동주민센터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일면의 반대쪽을 들여다보면 고도성장의 흐름 속에서 다소의 부정부패가 있더라도 성장만 하면 된다는 성장제일주의와 기업은 이익만 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이익우선주의 등이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잡아왔다.

국가 간, 지역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요즘, 우리 국가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함에 있어 경제력만큼이나 청렴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새롭게 자리잡고 있으며,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에 걸맞는 안전의식과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청렴의 개념 안에는 ‘양심’이라는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양심’이란 ‘가치를 변별하고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사건들이 끊임없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 청렴은 아작은 갈 길이 멀고, 현재 진행형인 것 같다.

우리는 간혹 청렴을 거창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공직자의 뇌물수수나 같은 노골적인 일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부당계약, 불법허가, 인사청탁 등 일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일에서 출발한다.

1%의 깨끗한 물에 오물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마실 수가 없듯이 99%의 공직자가 청렴해도 1%가 부패하면 도민들은 공직사회 전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모든 이들이 맡은 바 본연의 일에 정진하고, 작은 일부터 바르게 실천하며 양심을 지켜간다면 더 청렴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자격증 번호: 2004-03-0011

위 사항은 장례지도사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2004년 08월 05일

검정 한국장례업협회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장의사

<서귀포 천주교묘지 책임 총관리>

사무실 : ☎ 064) 732-5200, 762-5316 H·P 010-3696-3172, 010-8661-6560

택일, 토신제 / 축문, 제관, 제물
장례일체 (매장·화장·묘도)
중형, 소형, 차량완비 / 향상주, 야대기
방문상담환영

40년 전통 수제 신사복 전문

골덴라사

맞춤 양복은 명품(名品)입니다.
맞춤 양복은 오직 한사람만을 위한
예술품입니다.

준추복 신제품 대량입하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골덴라사 | 제주시 남성로 166(남문로터리 서쪽) T. 722-3679, H·P 010-7622-3679